



4면

디지털 기반 맞춤형교육 시스템 도입

# 전주매일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음 2월 25일) 제34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청명·한식·선거 전 후 도-시군, 산불방지 총력

### 전북자치도, 1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추진기간' 결정 묘지·유원지·관광지 등 산불취약지 감시활동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과 함께 대형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2일 시·군 부단체장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산불이 최고조로 집중되고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명·한식(4~5일), 선거(10일) 전후 10일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다.

청명·한식·선거 휴일에 묘지 이장이나 사초 등 산일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한 성묘객 실화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입산자가 많은 도내 주요 유명산과 사할 주변, 상습 무속행위지 등 산불취약지역 등에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히 예방과 감시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중점 추진대책에는 사전대비, 예방활동, 현장대응, 국민안전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우선 사전대비 분야에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별 상황관리 강화 및 현장 감시인력 확대된다.

현재 도내에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 기상 여건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 단계로 상황 발령될 수 있다.

대형산불 위험예보가 '경보' 이상 발령 시에는 신속히 재난문자를 발송하

고 재난문자를 수신할 경우는 불씨 관리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방활동 분야에서는 도내 주요 전광판 및 경보시설, SNS(안전문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감시인력을 전진 배치해감시원 및 진화대 등 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감시시간을 연장한다.

산불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장대응 분야에서도 도에서 운영하는 진화헬기 3대와 산림청 진화헬기 10대의 공조로 초기 진화 대응을 강화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외에 산림청 소속 공중·특수진화대 등 정예인력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도 산불상황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산불주변 단독 주택, 문화재, 요양시설, 국가유공시설 등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해 우선적으로 방어한다.

GPS 기반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현장정보를 공유하고,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 행동요령, 주민대피장소 등 필요 정보를 제

공할 예정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재난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우선 전북자치도는 대형산불로 확대될 경우 도지사가 현장통합지휘권을 인수해 현장 지휘하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재난대응 및 수습에 총력 대응하고, 대형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 소각방지를 위한 산림·농업·환경부서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도내 군부대에는 기상여건을 고려한 사격훈련이 조정되고, 각 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에 따른 산불비화 전 화재 상황을 산림당국과 공조한다.

한국전력은 전력설비 고장에 의한 산불방지를 위해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지역 산림조합별로 산불상황 시 진화차 물 공급 등 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해원 도 환경복지국장은 "올해는 3월까지 전국적으로 103건, 전북지역에서는 10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고,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청명·한식 전후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올해는 특히 선거휴일이 있어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도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일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새만금 개발·공동 벤처 설립·전통 문화 교류 등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 전북-이스라엘, 경제 협력 논의 이어가

###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전북자치도 공식 방문 창업정책·전통문화·지역 간 교류 등 분야별 협력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와 이스라엘과의 경제분야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가 지난해부터 지속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2일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등 대사관 관계자들이 전북을 공식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와 공식 간담을 갖고 새만금 개발·공동 벤처 설립·전통 문화 교류 등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식 면담은 전북국동방송 개국 5주년 기념행사에 아키바 토르 대사가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으면서 공식 면담 요청이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만남에서 김 지사와 아키바토르 대사는 양측의 창업정책을 공유하고 이스라엘 유망 벤처 창업기업의 기술이전 및 공동벤처 설립, 새만금 내 제조시설 설립 등 다양한 경제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해 5월 한국-이스라엘 컨퍼런스에 참가해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새만금 투자환경을 비롯해 국제적인 창업 선도국가인 이스라엘과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이스라엘과의 실질 교류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왔다.

특히, 이차전지를 비롯 바이오, 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을 추진하면서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정은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가 2023년 미국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5위를 차지한 글로벌 창업도시로 꼽혔다는 점에 주목하고 협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 지사는 공식 면담에서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등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방위산업을 특화해 육성하려는 우리 전북과 이스라엘의 혁신역량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며 "경제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 주한 대사로 부임한 아키바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 유대교 사상의 손꼽히는 전문가로 매주 토요일 아침 극동방송 라디오 '성경 공부' 시리즈에 정기 출연 중이다.

또한 KBS 이웃집 할스에 대사 신분으로서 처음 출연하며 낯다른 한국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무주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24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공모사업은 토지대장과 공유재산 관리대장 간 불일치 자료를 일제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사업비로 도는 2,700만원, 무주군은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됐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전북자치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전북자치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연계해 고창·부안군 소재 도유재산에 대한 불일치 재산 정비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존 적합성 등을 판단해 해당 도유재산을 매각이나 대부계약 체결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 '한시적 규제유예' 6건 추진

###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

과 총 6건의 규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전자상거래 허

용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을 기존 완화 △공공시설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유지 의무 폐지 △여행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규제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군, 유관기관 등과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를 수시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진안에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에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세요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지역특산물 등 진안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지급

- 기부액의 30%
- 진안군 답례품 : 돼지고기, 홍삼, 수삼(인삼), 사과, 진안홍삼스파 이용권, 승마체험 이용권, 진안고원물 온라인 상품권 등 34종

문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인구활력팀 063-430-2830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분 16.5% 추가 공제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부 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기부금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원스톱 시스템)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창구(전국 모든 지점)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아주세요.